

문의 010.2392.3523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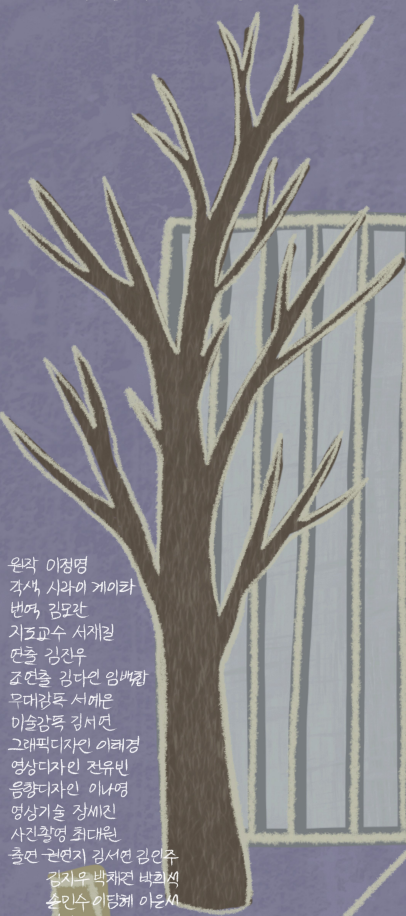
☎ @alpha.theatre

# 별을 스치는 바람


여행자 극장 (한성대역 5번 출구)

2024.06.01 금 19:30

2024.06.08 토 19:30



원작 이정명  
각색, 시각화 게이라  
번역 김모란  
지도교수 서계필  
편곡 김진우  
조연출 김다연 임백환  
무대감독 서예은  
미술감독 김서연  
그래픽디자인 이태경  
영상디자인 전유빈  
음향디자인 이나영  
영상기술 장세진  
사진촬영 최대원  
출연 권연지 김서연 김민주  
김자우 박재현 박희선  
송민수 이랑혜 이은서  
임서현

제작 및 자원  대학역인 극민대 대학혁신추진단

극민대 북악 인성교육센터

본 공연은 국민대학교 금곡별인문지역대학 한국어문학부 '알파 프로젝트 1' 수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공연은 서울특별시 '2024 서울경향작극장' 선정극장에서 권행되며 대관료 향인을 지원받았습니다.

QR코드  
무료 티켓 예매하기



기분 카메카를  
서울에주세요

# SYNOPSIS

1944년 후쿠오카 형무소.

악마라 불린 간수가 살해됐다.

유일한 단서는 그의 간수복 주머니에서 발견된 한 편의 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할 것 같던 담장을 넘어 시가 그들에게 닿았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살인의 미궁 속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시의 향연.

적막한 수용소 안에서 예술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어떤 폭력으로도 꺾을 수 없었던 이상과,

현실이라는 절망으로도 죽일 수 없었던 돌아나는 희망.

시인의 생애 마지막 1년, 수용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 CAST



와타나베 유이치  
이은서



윤동주  
권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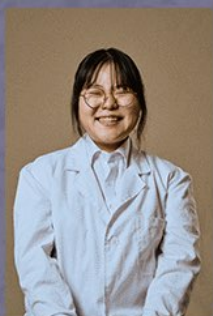
스기야마 도찬  
손민수



이와나미 미도리  
김서연



최치수  
김인주



모리오카  
김처우



소강  
이담예



강수장  
임시연



이마오  
박채련



김마고  
박희석



유이치 · 이은서

“난 이 글을 통해 당신을 잊어낼 거요.”

학병 출신 간수이자 검열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그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진다.

그건 바로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윤동주 · 권연지

“내 이름은, 윤동주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한 시인, 윤동주.

어느 날 그의 시가 살인사건에 연루된다.



스기야마 · 손민수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가야 할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저승사자이자 폭력 간수.

누군가에게는 사람과 예술을 사랑한 시인.



미도리 · 김서연

“전 그저,  
아름다운 음악을 전하고 싶어요.”

의무동의 간호사.

곧 열릴 평화 음악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맡았다.  
그녀의 피아노 선율은 늘 진실을 드러낸다.



최치수 · 김인주

“활자야말로  
혁명의 장애물이라고 확신했지.”

천황에게 폭탄을 던진 무기수이자

이루지 못할 꿈을 꾸는 공산주의자.

형무소 살인 사건으로 미완의 혁명을 위한 계획이 발각된다.



모리오카 · 김지우

“사람 목숨의 가치는  
형무소 안과 밖이 다르지 않습니다.”

규슈제국대학 의학부를 떠나

형무소로 온 일본 최고의 의사.

치료뿐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소  
장  
·  
이  
담  
혜

“여기 후쿠오카 형무소는 열도에서  
가장 위험한 병군들이 모여드는 곳이야.”

붉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인 후쿠오카 형무소의 소장.  
그의 영토 안에서는 오직 일어나야 할 일만 일어나야 했다.



간  
수  
장  
·  
임  
시  
현

“조선인이면 누구든 상관없어.  
살인자로 꾸며 내라고.”

소장을 도와 형무소를 관리하는 간수장.  
갇힌 자와 감시하는 자 사이에서  
그 무엇도 잃지 않으려 애쓴다.



이  
만  
오  
·  
박  
채  
련

“자네와 우리 이제 한 배를 탄 거야.  
수익은 반반, 어떨까?”

후쿠오카 형무소의 죄수.  
농민 대표로 일제에 항의하다 수감되었다.  
운동주의 진가를 알아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김만교  
• 박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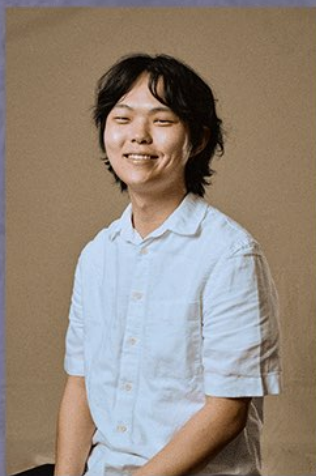
“많은 적든 여기 있는 인간들은  
다 뭔가를 팔아서 생활하고 있지.”

후쿠오카 형무소의 죄수이자

형무소 내 은밀한 거래를 주도하는 장사꾼.

만오와 손을 잡아 윤동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안한다.

# STAFF



연출  
김진우



조연출  
김다인



조연출  
임백합



무대감독  
서예은



그래픽 디자인  
이태경



# 팀 알파 프로젝트 소개

국민대학교 알파 프로젝트 <별을 스치는 바람>입니다.

알파 프로젝트는 국민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어문학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연극 프로젝트로,  
그동안 글로만 접했던 희곡을 직접 공연으로 올려보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연극 프로세스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배우의 역할로도 무대 위에 올라갑니다.

이번 연극 <별을 스치는 바람>은 예술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는 작품입니다.

예술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요구와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다만 예술은 현실에 존재하는 상처의 기록으로서 시대의 저항증거가 됩니다.  
또한 예술은 현실과 시대를 부정하면서  
우리에게 **살다운 삶**을 **꿈꾸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술이 가지는 힘을 믿고자 합니다.

이를 연극으로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예술을 통해 다시금 **삶**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을 담아



# 연출의 말

‘별을 스치는 바람’은 예술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이  
간절한 확신으로 변하는 과정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는 한 사람의 처절한 자기 인식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상처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예술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을 병합하고  
삼다운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공연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만들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연을 기획할 때 저는 오로지 이유에 대해 고집했습니다.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 무대를 올려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것은  
곧 예술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자  
예술을 공부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대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에 서 있는 명확한 이유를 만들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또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공연은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시작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불확실한 믿음으로 시작해 무대 위에서 자신감 있게 서 있는 것으로.



# 지도 교수의 말

국민대학교 글로벌인문지역대학

한국어문학부 교수 서재길



연극 <별을 스치는 바람>은 소설가 이정명의 동명 원작을  
극작가 겸 연출가 시라이 게이타가 각색, 연출한 작품이다.

2020년 일본 청년극장의 제 124회 정기 공연으로 초연을 가졌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소수의 관객만이 작품을 접할 수 있었다.

코로나 19가 거의 잠잠해 진 2023년 가을 청년극장이  
제 131회 정기공연으로 다시 무대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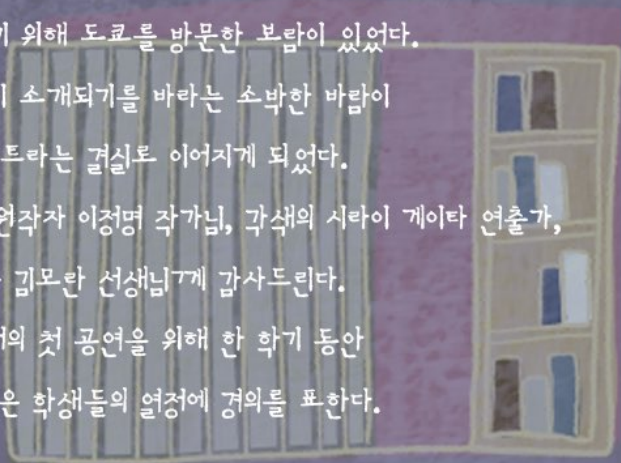
도쿄에서 공연을 가진 뒤 1년에 걸친 장기간의 일정으로  
현재 일본 전국 순회공연을 진행 중에 있다.

팩션인 원작을 매우 짜임새 있는 무대예술로 승화한 작품이어서  
이 공연 한 편을 보기 위해 도쿄를 방문한 보람이 있었다.

한국에서도 이 작품이 소개되기를 바라는 소박한 바람이  
학생극 공연 프로젝트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되었다.

공연 허락을 해 준 원작자 이정명 작가님, 각색의 시라이 게이타 연출가,  
그리고 번역을 해 준 김모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의 첫 공연을 위해 한 학기 동안  
공연 연습에 쏟아부은 학생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



# CREATIVE TEAM

## 연출

김진우(국어국문 20)

## 조연출

김다인(국어국문 22)

임백합(국어국문 22)

## 무대감독

서예은(국어국문 22)

## 무대

박채련(글트벌한국어 23)

채시원(국어국문 21)

이태경(국어국문 20)

## 미술감독

김서연(국어국문 22)

## 미술

권연지(글트벌한국어 22)

채시원(국어국문 21)

## 그래픽디자인

이태경(국어국문 20)

## 홍보

손민수(국어국문 22)

임시현(국어국문 20)

## 회계

김지우(국어국문 22)

박희석(국어국문 23)

이담혜(국어국문 19)

## 기획

김인주(러시아유태시아 20)

이은서(국어국문 23)



# SPECIAL THANKS TO

원작

이정명

번역

김모란

연출도움

김명화

각색

시타이 게이타

지도교수

서재길

드라마터그

김채봉(국어국문 박사과정)

영상디자인

전유빈(국어국문 20)

영상기술

장세진(외부)

음향디자인

이나영(외부)

사진촬영

최대원(외부)

제작 및 지원

국민대 대학혁신추진단

국민대 북악인성교육센터

본 공연은 서울특별시 '2024 서울형 창작극장' 선정극장에서 진행되어 대관료 할인을 지원받았습니다.

본 공연은 국민대학교 글로벌인문지역대학 한국어문학부 '알파 프로젝트 1' 수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